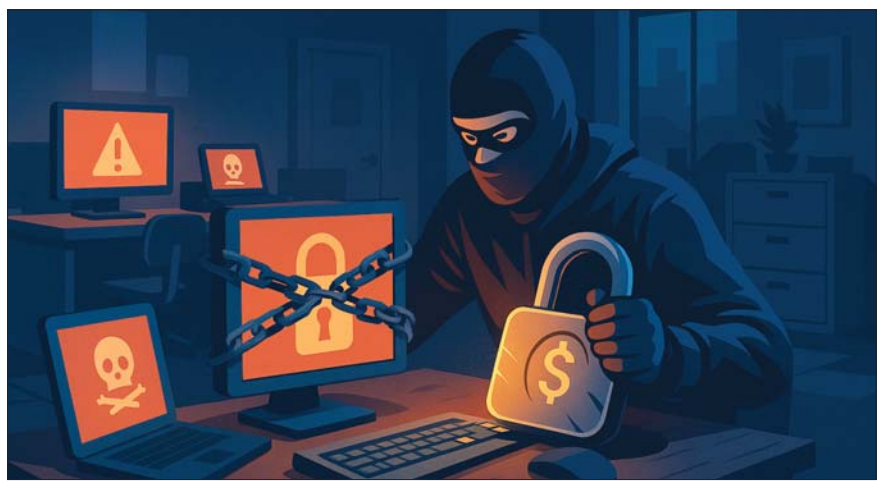
‘랜섬웨어 공격’ 시름 앓는 中企 방어전략·보안역량 고도화 필요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 15%↑
데이터 유출피해 1.9억건 이상

예산·인력 부족한 中企 취약
中企 31%, 사이버 공격 피해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고도화·다변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사이버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이달 펴낸 ‘ICT(정보통신기술) 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손해보험회사 트래블러스의 ‘2024 사이버 위협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5243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코드(Mal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시스템이나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이다.

지난 2024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피해는 1억9500만건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안 위협에 특히 더 취약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1월 발표한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IT 보안 제품 의사 결정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중소기업의 31%가 랜섬웨어, 피싱, 데이터 유출 등의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업체의 80%는 공격을 받은 후 약 10일간의 시스템 정지로 고객 신뢰를 잃고, 영업 중단을 경험해야 했다.

ICT 브리프 보고서는 ▲구독형 랜섬웨어 서비스 등장 ▲합법적 도구 악용 및 정교한 표적 침투 기술 발전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노린 맞춤형 공격 확대 ▲암호화 후 몸값 요구 방식에서 데이터 유출 협박으로 전략 전환 등 랜섬웨어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랜섬웨어 공격의 56%는 파워쉘(윈도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된 시스템 제어용 명령어 도구)과 같은 합법적 도구를 악용, 보안 솔루션 탐지를 우회해 기업 IT 인프라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블루욘더’, ‘무브잇’ 등 다수 기업이 사용하는 공급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일 침투로 수천개 기업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연쇄 공격이 벌어졌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인프라와 패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으로 내부 시스템 침투 성공률도 높아졌다. 아울러 공격 대상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험 여부와 보장 범위를 사전에 조사한 뒤 공격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몸값을 책정하는 정교한 표적 선정 전술이 등장하면서 공격 효율성 또한 향상됐다.

지난 2024년 랜섬웨어 공격자의 94%가 데이터 탈취를 시도했다. 과거 ‘암호화 후 몸값 요구’ 방식에서 ‘데이터 유출 협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데이터 강탈 기반 공격의 평균 피해 비용은 52만1000달러(약 7억4970만원)로 단순 암호화 공격 대비 2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인적 보안 역량을 고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사전적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중요 데이터 백업 유지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수립 ▲정기적 모의 피싱 훈련 ▲보안 교육 강화 ▲사이버 보험 및 외부 대응 파트너와의 사전 협력 체계 확보로 조직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딥시크, 약 2개월 만에 韓 다운로드 재개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일부 수용
‘韓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명시
이전된 데이터 파기 여부는 아직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앱 딥시크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약 2개월 만에 재개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사전 실태점검을 받은 바 있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시크 앱이 다운로드가 재개 돼 한국에서도 딥시크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딥시크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국내 출시 당시 중국어와 영어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 보호책임자 정보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키 입력 패턴 수집을 예고하고 AI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를 중국 및 미국 서버로 동의 없이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딥시크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를 통해 한국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를 전송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국외 이전 시 합법적 근거 구비, 기존 전송 데이터 즉각 파기, AI 학습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opt-out 기능 도입) 등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는 최근 한국어판 처리방침을 새롭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해외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학습에 대한 옵트아웃 기능도 지난 3월 17일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볼케이노로 이미 이전된 프롬프트 입력 데이터의 즉시 파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딥시크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KT, 계명대에 ‘멀티 AI 플랫폼’ 지원

다양한 LLM·맞춤형 교육 서비스

KT가 계명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약 4700명에게 다양한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AI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KT가 AI 코스웨어 기업인 타임리와 함께 개발한 이 플랫폼은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퍼플렉시티의 ‘퍼플렉시티 AI’ 등 총 5가지의 LLM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KT의 AI 기술에 관한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개발되어 이용자에게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전공 학습 정도에 따라 성취도를 예측하고,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진로를 추천하는 기술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논술 첨삭을 자동화한 기술 등이 활용된다.

KT는 학습 또는 업무에 필요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 요약, 번역하는 프롬프트 템플릿도 지원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약 70개의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작,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현대오토에버, ‘클라우드 전문가’ 이경수 영입

〈클라우드인프라센터장 상무〉

AWS·삼성전자 등 주요 IT기업 근무

현대오토에버는 이경수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솔루션아키텍트 리더(사진)를 클라우드인프라센터장 상무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새롭게 만들어진 클라우드인프라센터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직속 조직이다. 이경수 상무는 센터장을 맡아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관리 및 데이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이 상무는 지난 26년간 삼성전자와 AWS코리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근무하며 클라우드 기반 IT 전략 수립,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개발·운영, 정보보안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

이 상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수립 ▲글로벌 인프라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SK C&C, ‘이니스프리몰’ 디지털 전환 완료

동시 접속자 최대 26만명으로 개선

SK C&C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몰’ 디지털 플랫폼 전환 구축 사업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SK C&C는 고가용성 클라우드 인프라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플랫폼 성능을 높였다. 프로모션 시기 주문량 급증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했으며, 이니스프리 전사 시스템 표준화와 클라우드 기술 기준 수립으로 시스템 확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6만명,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 2만8000건에 달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화면 응답 속도도 평균 0.74초로 대폭 개선됐다.

이니스프리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도 탑재됐다. ‘AI케어’ 기능은 피부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또 AI가 구매 이력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날씨 정보에 기반해 제품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생겼다.

/김현정 기자

LG U+ “가족들과 U+tv 함께 즐겨요”

최신영화 감상 시 상품권 선물
50여편 영화 최대 50% 할인

LG유플러스가 자사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U+tv에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최신 영화를 U+tv로 감상한 고객에게 항공, 쇼핑 상품권을 선물한다.

다음달 11일까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미키17’, ‘콘클라베’ 등 신작 VOD를 포함 9900원 이상의 콘텐츠를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50만원(2명) ▲다이소·편의점 1만 원 상품권(100명, 종류 랜덤) 등을 증정한다.

또한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소장 구매한 고객 50명에게는 5월 17일 새롭게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예매권(1인 1매)을 제공한다.

5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수퍼 소닉3’, ‘트랜스포머 ONE’, ‘가필드 더 무비’, ‘웡카’ 등 50여편의 영화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사 키즈 전용 플랫폼 ‘아이들나라’의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